

# 바로크공간의 탈경계적 조형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nsborder Characteristics of Forms in Baroque Space

**Author** 한명식 Han, Myoung-Sik /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 부교수

**Abstract** The visual expression system of space realized in Baroque aesthetics is basically grounded on the philosophical view to the world of the time, that is to say the changes of the thinking system in the Renaissance and ontology based on it. Structural aesthetics in Baroque freed from Plato's system of harmony but grounded on Leibniz's process philosophy formed a crucial background to highlight the formal nature of the whole and build a structure based on the inclusive principle of formativity. Also, to solve problems to realize the order and consistency of forms from the whole, Baroque adopted the nonlinear and nonphysical formative system as the principle of building space in works of art. Combining the order system of nature in the Renaissance with manneristic dynamicity as well as formative principle taking shape geometrically, it did establish a variety of aesthetic concepts based on the results of infiniteness and exaggeration expressed from the two forces, the Renaissance and mannerism.

This study has found that such Baroque aesthetics did overcome classical planeness and draw continuous mobility from the structures and forms based on that with the transborder concepts of structures, the components of space, as an ultimate system of formative expression. Moreover, this author has drawn and analyzed with the cases of the 17th-century art and architecture the transborder elements manifesting the nature of diverse formative visual elements produced in artistic expressions with that principle of aesthetics, that is the intangible concept of Baroque. Based on that, this researcher intends to come up with technical solutions to solve a lot of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problems we are severely facing nowadays in terms of environmental, physical, and emotional aspects with the theoretical clues and results acceptable to this contemporary era.

**Keywords** 바로크 공간, 탈경계, 조형특성  
Baroque Space, Transborder, Characteristics of Form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바로크는 세계관 자체를 영원불멸의 가치로 고정시키려한 르네상스적 고전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비된다. 또한 서구 문명의 중심축, 이원론과 상반되는 미시적 개념 또는 이성적 명징함이 요구되는 고전적인 삶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규명되거나 모범적이지 않은 미완성의 주제로서 해석된다. 에우헤니오 도르스(Eugenio D'Ors)를 비롯한 뷔플린(Heinrich Woefflin)과 구를리트(Cornelius Gurlitt), 바이스바흐(Werner Weisbach), 크로체(Benedetto Croce), 하우스젠슈타인(Wilhelm Hausenstein), 포시용(Henri Focillon)과 같은 예술사자들은 바로크를 예술의 형식미학적 차원에서의 탈피와 삶에 대한 생산적 역할과 다양

한 가능성을 가진 개념적인 사조로써 평가하기도 하였다.<sup>1)</sup> 정형화되지 않은 틀 속에서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미학을 통해 격변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사회와 문화적 변위성에 대처 할 수 있는 무형적 원리로써 바로크를 조망한 것이다.

특히 서양예술의 양식이라는 특정 관점을 넘어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인간성의 본질적 향수, 고전적 의식이라는 고급스러운 정신상태가 약화되면 자아 안에 들어있는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제약 없이 밖으로 분출되는데 이것을 바로크적 자아라고 규정한 도르스의 주장은<sup>2)</sup> 바로크가 특정 시대의 문화현상을 넘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고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 예술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 유용적 원리임을 상정시킨다.

1) 김영방, 바로크, 한길아트, 2011, p.22

2) Eugenio d'Ors, Le Baroque, Barcelon, Tecnoc. 1993, p.17

도르스에 의하면 존재의 심연이 자아 속에서 분출되고, 그것이 예술의 심연 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으면 균형, 질서, 조화를 중시하는 고전주의적 경향에 반하는 과장과 무질서, 모순성, 유희성, 다양성이 혼재하게 되는데 이로써 자아를 전형적인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이성을 촉매 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인 경계를 가로지르는 보편적이며 상대적 질서가 부여된 내적인 원리, 완결성보다는 다양함과 긴장으로써 무한과 초월을 내재화시키는 미학적 개념으로써, 반종교개혁을 성사시킨 효용적 가치와 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바로크 성당의 구조적 특징, 즉 부분이 아니라 전체, 빛과 움직임이라는 극적인 효과와 같은 조형조작을 통해서 신앙적인 신비감을 높여야 할 가톨릭의 의도는 17세기의 건축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조형적 방법을 구상하도록 주문되었으며 가시적 표현의 한계를 초월시키고 환상적인 구조적 암시성을 공간에 담을 것과, 영역적인 경계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관찰자가 공간의 조건을 즉각적인 감지로 파악할 수 없도록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간을 3차원적 완성으로 완성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시선의 진행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바로크 공간에서 구현되는 구조적인 굴절기법과 그에 따른 시각적 왜곡, 과장현상이 형태의 경계감을 와해시키거나 연장시키는 조형적 착시성의 궁극적인 원리를 구조미학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그러한 탈경계적 조형성이 구체적으로 공간의 가시적 영역감에 어떠한 결과적 유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연구는 우선 바로크 공간을 형성시키는 미학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르네상스적인 고전성과의 비교를 통해 개념적인 원리와 원인들을 분석·정리하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미학적 원인을 불러오는 동기를 당사회의 철학적 배경을 통하여 그 특이성과 조형적 구조 특성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각각의 시대를 서술하는 미학적 텍스트란 어차피 사회의 총체적 규범과 정신적 필요에 응답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론되는 시각적인 조형요소와 그 본성을 고찰할 것이며, 바로크라는 무형의 개념을 현현시키는 가시적 요소들 중에서 탈경계적인 요소들을 17세기 미술과 건축의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현대적 수용이 가능한 이론적 단초를 마련토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환경적 물리적 정서적 난제에 봉착하고 있는 오늘날의 다양한 환경적·건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적 해법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 2. 바로크의 개념적 이해

### 2.1. 철학, 사상, 종교적 배경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데카르트(Rene Descartes)의 환원주의<sup>3)</sup>가 일컫는 것처럼, 세상의 질서는 양적인 규정만으로 정의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세상은 무한한 다양성과 일의적 존재들의 끊임없는 생성과 유동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바,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융화적 관점에서 무한한 긍정성과 상대적 인과법칙을 내재한다.

라이프니츠를 중요 축으로 하는 이 같은 당시의 근대성, 즉 모더니티란 고대정신의 부활로 새로운 이상향을 지향하려는 르네상스 전통성과의 차이를 가진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유체계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세계를 해명하고 변화시키려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대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미 있는 계기라 볼 수 있는 종교개혁은 종교자체를 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과 대립의 주어가 되었다. 신 앞에 평등한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우주, 선형적 신, 전통과 제도 등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존재하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여겼던 고전적 르네상스 이념이 스스로의 감각이 주체가 되어 선택되는 주관성의 증식과 일탈을 억제시킬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예컨대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의 지동설 이후 세상의 삶은 이미 탈지구 중심체에서 일반화된 사유 패턴으로 전향 되었으며, 이 때문에 사유하는 주어의 외부세계에 대한 근대성의 토대는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이동하듯 사유주체 또한 국지성에서 탈피하여 동시대의 인물들과 상당수 유럽 국가들을 포함시키며 동서를 망라하는 보편적 공동담론의 장을 형성시켜야만 하였다.<sup>4)</sup>

근대철학의 중심 문제를 종합해보면 그것은 참되게 존재하는 실체가 무엇이나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대하여 데카르트는 합리론을 통해 신, 인간, 자연이라 하였으며,<sup>5)</sup> 스피노자는 자연(Deus Sive Natura),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데카르트 방식의 명식 판명한 자의식이 아니라 투명하지만 흐릿한 명암의 대비를 이루는 밝은 의식과 어둠의 양 측면에서 출발하며, 인식에 있어서도 밝은 측면만이 아닌 어두운 측면이 항상 고려되는 개념으로 이해 될

3) 이 시기는 계열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초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상은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고 19세기 비인 학파는 이러한 가치를 내걸고 모든 학문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事象)이나 개념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이며, 특히 과학철학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이론적 개념이나 법칙을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경험명제의 집합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실증주의적 경향을 가리킨다. E.마하와 R.아베나리우스 등의 경험비판론, M.슐리크와 R.카르나프 등의 논리실증주의가 그 전형이다.

4) 배선복, 라이프니츠의 바로크 기획과 동서비교 철학, 한국학술정보, 2012, pp.17-25

5) A.Kenny, The Rise of Modern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187

수 있다.<sup>6)</sup> 즉 데카르트 주어진 꿈의 연대를 신뢰하지 않는 의심으로 시작되지만 모나드는 몸의 어두운 지대를 계산하고 합리성의 잠김에서 잃어버린 이성의 위기를 구원하는 보호막으로써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명석 판명한 의식의 밝고 투명한 현실에 반해 모나드 주어진 몸의 의식은 여전히 어둡고 불명료한 지대인 것이다.<sup>7)</sup>

인간이란 하나의 인자로서<sup>8)</sup> 자기신뢰와 자존적 감정을 획득함으로써 사유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써 자신을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우주를 이해 할 수 있다. 그 법칙에 따라 자연을 산출, 대응할 수 있다는 라이프니츠의 이 같은 합목적성의 철학은 방법론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또는 전통과 당시의 바로크를 조화시키는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라이프니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형이상학과 스콜라 철학, 그리고 근대 철학과 과학을 함께 수용,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이상학적 세계를 구축하였다. 신과 인간의 이성이 대립하지 않고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두 개의 미로 위에 건축된 하나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통해 과거와 근대를 잇는 새로운 사유의식의 단초와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으로 초토화된 당시의 유럽을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계기, 또는 공간적으로 서양과 동양, 시간적으로 전통과 현시를 통합시키는 원인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예정 조화설을 도덕적 존재론의 근대적 형태 중의 하나로 이해해보면 모나드는 다른 것들과 차별적이면서 각자 내부로부터의 활력에 의한 변화와 경험과 존재이다. 그에 의하면 '창이 없는.' 즉 상호간의 인과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세계는 창 없는 수없이 많은 모나드들로 가득 차 있음으로 설명된다. 그렇지만 모나드들의 세계가 카오스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각자 분리되어 있는 모나드들은 신이 부여한 어떤 법칙, 즉 예정 조화의 원리에 따라 다른 모나드들의 변화에 조화롭게 대처하고 그 스스로 변화한다고 강조된다. 그래서 모나드의 세계는 질서 잡힌 체계이며, 이 체계는 신이 완전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정해 놓은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완전한 체계가 된다.<sup>9)</sup> 모나드 스스

로가 내생적인 운동성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일으키며 미래와 과거를 일원화시키며 전체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모나드는 라이프니츠에 의하여 단순실체, 또는 부분을 가지지 않는 존재자라 규정되었다.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장도 모양도 존재하지 않고 분할도 가능하지 않는 이른바 단일성의 개념이다. 단일하기 때문에 순수하며 타자를 허용하지 않는 분할 불가능한 일자성이다. 이는 들뢰즈로부터 모나드의 자족성, 즉 초월성과 스스로의 근거로써 외적 자극이나 타자에 의한 영향을 부정하며, 모든 것을 근거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서양 형이 상학의 보편적 특성이자 나무뿌리로 설명되는 수목적 사유<sup>10)</sup>의 질을 상론시켰다. 서로의 성질에 의해 스스로 구별되며 모든 변화의 양태를 상호 공유하는 모나드들의 이러한 자연적 변화야 말로 각자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며, 변화하는 것과 남아있는 것, 다수를 포함하는 질과 차이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개념은 들뢰즈가 언급하는 것처럼 주름이라는 빈위(賓位, attribute)적 개념으로 추론되며 모나드의 변화가 다질적 존재이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적 복수성과 미학적 형이상학의 근거가 된다.

## 2.2. 르네상스 미학과 비교

르네상스는 서양미학의 총체적 전통성을 전형화 한 시기이다. 중세이후 여러모로 새로운 학문과(특히 과학과 인문학), 종교, 사회를 함축하며 미학·철학·사상적으로 공고화 시켰고, 또한 이를 현대로 이어지게 하여 서구라는 정신적 경향의 준거점을 형성시켰으며, 형식상·개념상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다양한 의미들을 전착시켰다. 또한 빌플린의 미술사의 기초개념<sup>11)</sup>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의 고전적 유형성과 바로크의 대비 속에서 발견되는 직관형식의 교체는 바로크를 르네상스의 규범성과 부동적 조형성으로부터의 변형된 조망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바로크공간에서 구현되는 조형원리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의 조형 원리와 이론적 토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성 상 사물을 아름답게 해 주는 특질은 '수(數)의 유

6) 여기에 대하여 20세기의 인식을 살펴보다도 프로이트의 무의식으로 재발견되어 존재의 근본 양태로 정의 되었고, 융(C. Jung)도 존재의 근본양태를 이루는 인간존재의 본질을 의식적인 자아에서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한다 있다. 프로이트의 밝은 빛의 명료성과 꿈의 불명료성 사이의 대비는 융의 주어진 자기규정의 자율과 어두운 집단 무의식의 자율에 대비된다.

7) 어두움에 대한 이러한 지대는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인 가치성으로 드러나는데, 바로크 문명이 그 중심 경로가 되었다.

8) 라이프니츠는 이를 모나드라 주장하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부분을 가지지 않는 단순 실체로서 이 개념화하였다. 모든 복합체는 이 모나드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고 공간적 크기가 없으며, 연장도 모양을 지니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소멸하거나 탄생하지 않는다는, 즉 복합체가 바뀌는 방식으로서 변화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따라 끊임없이 유통하는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다.

9) 정영도, 철학사전, 이경, 2012, 조사가 필요함.

10) 들뢰즈는 천개의 고원 서문에서 서구의 사상적 전통을 수목형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밑줄기에서 큰 가지,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들로 파생되는 패턴구조처럼 사유 또한 다양하고도 미세하게 뻗어나가지만 그 모든 잔가지는 하나의 상위이웃들로부터 연결되고 그를 통해 오직 하나의 중심으로 귀결되는 개념이다. (이진경, 노마디즘 휴머니스트, 2002, pp.109-111)

11) 빌플린은 그의 책 미술사의 기초개념에서 르네상스 고전성과 바로크의형식적 특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 개념 쌍으로 요약하였다.

1. 선적인 것에서 회화적인 것으로의 발전
2. 평면적인 것에서 깊은 것으로의 발전
3. 폐쇄적인 형태에서 개방된 형태로의 발전
4. 다원성에서 통일성으로의 발전
5. 대상에 대한 절대적 명료성과 상대적 명료성

형화'라고 한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의 주장에 의하면, 수란 형태가 현상되는 근원적 요소가 되며 그것은 다른 부분들의 접속과 결합으로 생겨나서 전체에 미와 우아함을 부여하고 조화시킨다. 우아하고 멋진 모든 것들의 원형이 수라는 무형의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즉 조화의 본성이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전체로 형성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신의 시각화인 것이다.

뒤러(Albrecht Dürer)도 수학적 법칙이 자신의 회화에 있어 재현의 정확성과 시각적 질서나 조화 간의 화해를 목표로 한다고 하며, 미는 양극단 사이의 중용에 위치하고, 그래서 유용성은 궁극적으로 미의 일부이며,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조화가 결여되면 아름답지 않다고 피력한바 있다.<sup>12)</sup>

또한 '르네상스의 우주적 질서의 가시화와 그것들의 종합적 포괄을 바로크'<sup>13)</sup>라고 표현한 쉘츠(N. Schultz)는 르네상스에 대하여 질서화한 우주와 자연 속에서 신성하고 완전한 존재를 확고하게 믿으며, 중세의 신학적 사유 안에서 이루어지던 만물의 질서를 관찰과 실험으로 탐구함으로써 우주적 인식을 형이상학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그대로의 상태라고 표현하였다.<sup>14)</sup> 그에 의하면 자연관과 우주적 해석은 논리적인 수학에 기초한 기하학적 질서의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예술 형태의 조형적 완성을 통해 존재의 기능적 의미를 대체한다는 논리이다. 보편적인 조형개념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통일성과 그에 대한 공간감정, 비례의 기준, 모티브에 집중된 묘사의 제한, 한눈으로 파악 가능한 구조의 통일성, 그 모든 것의 총합을 합리주의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였다.

하지만 바로크는 조형요소의 구축방법과 절차와 목표를 다른 개념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르네상스의 우주적 질서가 내장된 기하학적 추상성과 매너리즘의 역동적 변형의 동적인 조형원리를 결합, 복합화시킴으로써<sup>15)</sup> 공간이나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중앙의 개념과 무한한 연속적 리듬을 인위적으로 공명시킨 것이다. 즉 크기나 영역의 경계를 회피하게 하여 존재적 여운을 주거나 잠재화하여 즉각적인 형태의 윤곽을 가리고 관찰자의 개인적 시각을 작용시키는 주관적 깊이감을 높여 놓았다. 공간의 규모가 물리적 규모로서 계산되거나 인식됨이 아니라, 공간의 조형 조작에 의해 실제공간이 과장, 축소된 상태로 착시화되며, 규정되거나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개념적 상대성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크는 르네상스의 형태 개념과 비

교하여 역동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컨대 르네상스 건축에서는 표면 선들의 투시적 암시로 말미암아 2차원인 파상을 이루어 낸다면 바로크는 전체 벽 자체가 3차원적인 파상을 이루며 굽어져 흐르고 시각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로인해 바로크의 화면은 비현실적인 역동성을 자아낸다.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진행형의 상태, 즉 전체 속에서 요소들끼리의 상호 명확한 분할과 단절을 피하며 상호 유기적 개념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항구적인 진행의 역동성을 현현시켰다. 그리하여 바로크 공간은 형성되고 있는 그 무엇, 생성과정에 포착되는 일종의 생성적 기능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바로크의 그러한 특성은 회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공간이 실제보다도 깊어지도록 전경을 과도하게 크게 그리거나, 전경의 인물들을 보는 사람의 바로 눈앞에 돌출시키거나, 또는 사물을 원근법적으로 급격하게 축소시킴으로써 관찰자에게 심연한 인상을 심어준다. 화면 속 공간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과 함께 화면 자체가 관찰자 자신에게 종속, 의존되며 관찰자 자신만을 위한 개별적인 시각감을 심어주는 기법이다. 절대적 전형성을 상대적 유동성으로, 또한 엄격한 것을 자유스러운 것으로 대체하는 비 건축적 형식의 열린 구조의 개방성이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적인 공간과 화면의 구도에서는 공간에 표현된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한계 지어진 현상이며 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서로 의존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지만, 바로크는 불완전하고 분열적이며, 어디서나 다시 시작될 것만 같고 자신을 초월하여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빌플린은 궁극적으로 바로크가 지향하는 공간이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스쳐지나가는, 그러나 관람객이 한순간이나마 머물렀다는 영광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sup>16)</sup>

### 3. 바로크 공간의 미학적 근거

#### 3.1. 공간을 해석하는 존재론의 변화

바로크는 실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본질에 대한 존재자의 다양한 존재방식을 규정하고, 이를 통일시키는 최종적인 근거, 또는 원리에 대한 물음을 제시한다.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본체 현상의 이론론적 구도는 전통 형이상학으로부터 사유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와 형상', 플라톤의 '본체와 현상'의 개념으로써 서양사상의 주도적 모델로써 자리해 왔고,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변하는 정신적 사유로써 철학, 예술, 과학에 유효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한 건축

12) <http://blog.naver.com>

13) C. N. Schultz, Baroque Architecture, New York: Harry N. Abrams 1971. p.287

14)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2, p.27

15) C. N. Schultz, op. cit., pp.315-316

16) 하인리히 빌플린, 박지형 역, 예술사의 기초개념, pp.31-98

의 존재 근거 또한 형상과 질료의 도식을 공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써 본질과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에 다양한 인식의 변화를 적용해왔다. 이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공간의 주요 논의를 신체성을 강조한 현상학, 즉 자아와 신체의 체험에 의해 지각되는 공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다양한 존재론적 물음으로 전이되기도 했다. 공간이 변함없는 '있음'의 상태가 아니라 '생성'이라는 사유로써 거론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프니츠의 생성철학으로 연결되는 고전적 형이상학의 초월성이 극복된 존재론적 관점으로 시정된 것이다. '있음'이란 시공간 내에서의 특정 내용과 표현의 형식을 갖춘 존재체인 반면 '생성'은 '시간'과 '사이'의 변이이자 존재와 존재의 변이 상태를 의미하듯이, 특정한 시공간 내에서는 현실화되지만 실현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변이를 끊임없이 산출함으로써 현실을 곧바로 과거화 시키고 동시에 미래화 시키는, 즉 생성 자체를 하나의 안정적인 상태와 다른 안정적인 상태 내에 있는 잠정과 과도기가 아니라, 본질 그 자체의 일의적 관점으로 되돌려 놓는 영속적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모나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단순실체' 또는 '완성태'라고도 지칭했던 이유도 동일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 3.2. 유기체의 항구적 분할과 자기증식

본질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연산과 함수의 특질을 지시하며, 그로인해 고정된 체계로 유지 되지 않고, 힘과 영혼성의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 변화될 수 있는 자발적인 의지, 즉 라이프니츠의 가변적 변곡이라는 들뢰즈의 주장처럼 바로크는 심연·바닥·배경에 의한 살아있는 바탕으로써 형성된다. 그리고 그 바탕은 유한한 깊이가 아니라 무한하고 어두운 심연으로 이루어진 외부 없는 절대적 내부성과 현상의 물리적 범칙으로써 존재의 영속적인 재분할을 가능케 한다. 존재를 영원히 연장시키고 열린 연쇄의 항구적 반복을 가능케 하는 외부성의 무한한 분할과 변위성을 통해서 모든 질료를 포괄하는 조화와의 연관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존재를 현현시키는 좌표적 내포체(內包體)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바로크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오히려 형이하학적으로 다루어지는 자연철학의 미시적 지각표상으로써 사유하는 주어와 사유된 대상사이의 현상학적 의미를 시간과 공간을 사물이 아닌 모종의 관계에 의한 의미로써 간주시킨다. 예컨대 바로크 예술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이 현상학적으로 지속적이며 역동적이지만 모호한 상호 개별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전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시간과 공간의 존재론적 카테고리에서 질료가 자기증식

을 내포하며 이로 인한 무한의 지속과 이어짐을 갖는 계기, 즉 세계와 주어의 관계가 상호 침투와 상호 겹침의 회기적 관계로 존재가 스스로 위이며, 스스로 세계를 표현하며, 스스로의 자아와 영혼과 세계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로크 공간은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지만, 관성력과 원심력과 균형을 이루려는 끊임없는 유기를 창출해 낸다. 거울의 무한한 겹침이나 절대적 암실과 같은 시지각적 심연성, 경계를 지우고 잠재시켜 단절이나 끝·종결·절교·불통의 개념이 아닌, 오히려 하이데거에서 원용될 수 있는 차이 산출자(differenciant de la difference), 또는 존재간의 공의연성 같은 관념적·조작적 행위현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개념으로 현묘(玄妙)되는 것이다.

### 3.3. 모나드론과 주름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모나드란 공간적 크기가 없고, 연장과 모양을 지니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소멸하거나 탄생하지 않는, 신의 창조에 의해서만 탄생하고 신의 무화에 의해서만 소멸하는 존재로서 설명된다. 그리고 복합체가 바뀌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고, 모두 서로 모두 다르며, 스스로의 힘에 따라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며, 힘뿐 아니라 바뀌어가는 세부사항도 가지는데, 이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주름을 지칭한다.<sup>18)</sup> 따라서 이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모나드란, 여럿이며 일시적인 상태의 지각 작용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 나아가게 하는 욕동 작용, 모나드만이 지각할 수 있는 지각과 지각의 연속적 바뀔이 모나드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저서 변신론에서 주장되는 모나드의 정의도 단순 실체, 부분을 가지지 않는, 요컨대 연장도 모양도 없는 분할도 가능하지 않는 진정한 사물의 요소와 원자이다. 여기에서의 단순함이란 개념적으로 순수함, 타자를 허용하지 않는 단일성, 즉 외적 자극이나 타자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 근거로서 초월성으로 규정되며 모든 것을 근거나 원인으로 추론하는 서양형이상학의 보편적 특성인 '수목적 사유'와도 비교되는 개념<sup>19)</sup>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란 외연적 원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나드 자체의 자연적 변화는 각자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며, 변화하는 것과 남아있는 것 다수를 포함하는 이 다(多)의 세계에는 차이가 전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질적 차이가 총침된 주름을

17) 배선복, 라이프니츠의 바로크 기획과 동서 비교 철학, 한국 학술정보, pp.155-159

18) 모든 물체는 그 안에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라이프니츠의 탄성 이론은 '세계란 무한히 접힌 주름'으로 귀결된다.

19) 나무 뿌리로 설명되는 '수목적 사유' 즉 들뢰즈가 '천개의 고원'에서 서술하고 있는 서구의 전통적 사상으로써 나무의 굵은 줄기와 그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들의 연속성처럼, 아무리 미세한 잔가지라 해도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상위 이웃들과 연결되고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의 중심으로 귀결된다는 논리이다.

이루며 이러한 변화의 근거를 이것의 운동에 의한 다질적 존재이며 질적으로 여럿인 내적 복수성의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빈위들의 총체인 모나드는 분할되지 않는 단일성과 자족성의 특성으로 스스로 변화하려는 욕동에 의해 동적 세계를 내포하는 자기 활동성을 가지며, 이는 스스로의 차이로 접혀있는 내적 복수성, 즉 주름의 항구적 반복에 의한 3차원적 공간성을 내재한다.

### 3.4. 현상계에 지각되는 본체와 현상의 조화

살펴본 것처럼 비물질체인 모나드는 물질체인 하나의 개체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접히는 주름을 가지며, 이로 인한 자기 활동성과 하나의 지각으로 수렴되고, 또한 이 때문에 현상계로 다양하게 드러난다. 일자의 본체로서 모나드가 현상계에 인식되는 과정에서 본체와 현상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해 요청된 예정조화, 즉 유기체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실체로서의 모나드는 현상계에 지각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본체와 현상이 관계 맺는 절차는 모나드의 수렴과 발산의 위상변환으로 인해 모나드의 탄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이른바 '위상변환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이를 지각으로 전환시킨다. 본체에 잠재된 무수히 많은 다양성이 현상계에 실체화되는 방법론적 원리자체가 모나드의 끊임없는 탄생과 조화를 일으키고, 그로인해 요청된 예정조화가 시각적인 영속성을 현상계에 나타내는 것이다. 모나드의 본성 자체가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된 연장선상으로서 실체가 본체에서 모종의 현상을 드러내며, 또한 접혀져 있는 모나드가 펼쳐짐으로서 모나드에 잠재된 힘에 의한 세상과 관계 맺는 수렴 발산의 구조가 마침내 현상계에 지각적인 경계를 지워내는 탈경계의 특성으로 현현되는 것이다.

## 4. 바로크 미학의 탈경계적 조형 특성과 유형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는 하나의 모나드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동과 그러한 지각적 표상이 인간의 지각에 작용하여 다양한 변양태를 만들어 낼 때, 결과적으로 바로크적 조화를 표상시키는 개념으로 상정 될 수 있다. 모나드가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근거 자체가 과거·현재·미래라는 술어적 상황이 동시에 내속되어 내적 복수성의 속성으로서 현상계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의 근거와 변화의 요인 모두를 포함하는 완성태가 되어 인간의 즉각적인 감성인식을 잠정화 시키고 교란시키는 착란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는 불확정적 조형성으로 감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나드의 접힘 상태가 수많은 주름이 접혀있는 내적 복수성을 유발하고, 그리하여 특정한 의미가 발생

되기 이전의 상태, 즉 고정화된 의미가 없는 여러 가지 변위들을 잠재시킨다. 그리고 개체성을 확보하기 이전의 장(field)의 상태가 되는<sup>20)</sup> 이러한 불확정적 조형성은 미술과 건축의 공간적 특성을 비정상적인이고 비고전적인 착안과 배열을 통해서, 앞서 언급되었던 바로크 예술이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원인으로서의 지각적 묘연함과 즉각적으로 인지될 수 없는 공간의 물리적 규모와 깊이감을 증폭시키는 탈경계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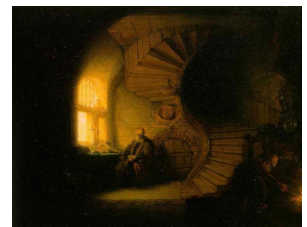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이 같은 특성이 미술과 건축공간의 실제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고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관찰자의 지각에 작용되는지를 유형별로 살펴볼 것이다.

### 4.1. 심연적 깊이감

각각의 요소에서 기인한 부분적 형태들의 총합은 플라톤식의 조화가 아니라 복잡한 전체구조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른바 자연물의 유기체적 형태에서 나타나는 곡선이 비선형적으로 조합되어 전체를 형상화시키고 형태들의 특수한 부분적·요소적 특성을 간략화 하거나 배제시키면서 전체조직의 구조에 관여된다. 이는 결국 조형적으로 전체 형상 속에서 형태들이 각각의 질서적 특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 반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정신적 흐름을 형태에 내재 시킨다. 형태들이 스스로 서로에게 작용하고 문제화 되면서 각자의 작용을 연속적으로 생성·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결합이나 서로간의 우열을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에게 가하는 작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접히고 합입되어 형태들의 가시적인 물질성을 서로에게 전가시켜 흡수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들뢰즈가 말하는 주름의 반복이 서로의 작용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그 과정이 분절되면서 실제의 형태적 결과, 즉 그림의 화면에서는 극적인 음영이나 빛과 같은 밝음이 가시화되고 건축 공간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감지되기 어려운 막연한 공간성으로 증폭되는 것이다. 바로크 조형이 고전적 개념의 평면성을 극복하고 무한한 깊이감을 가진다고 평가되는 이



<그림 1> Sleeping Cupid, Caravaggio, 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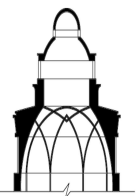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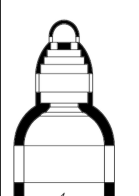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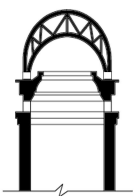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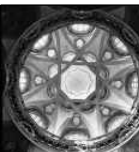



<그림 2> Philosopher in Meditation, Rembrandt, 1632

20) 김성우, 이승용, 장이론에 입각한 건축에서의 장의 이해와 건축장의 가능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5호, 2003, p.13

유는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형태와 공간이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가지화 된다. 하나는 형태의 윤곽을 통하여 나타나거나, 또는 면의 굴곡이나 볼륨을 통해서인데, 전자는 형상의 테두리 경계를 가지화하는 소묘적인 방법으로써 주로 르네상스의 그림과 건축에서 많이 나타난다. 관찰자의 시선 자체가 이미지 형태의 외곽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평면상태가 유지되는 방식이다. 이는 건축에서도 구조체의 전체적인 볼륨이 안정되고 건물 윤곽의 양감이 외부 지향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크 조형은 형상의 윤곽보다는 전체적인 덩어리의 체계를 인식하도록 하여 윤곽선에 대한 주목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림 1>을 보더라도 측정 될 수 없는 막연한 어둠속 공간에 존재하는 모델들이 빛을 통하여 일부만 감지되고 어둠속에 잠재된 부분은 상대적인 잠정적 양감으로 인식된다. 빛이 형태의 윤곽선을 비추지 않듯이 형태는 빛으로 말미암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드러나고 그 양감은 관찰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하여 막연한 수치로 측정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대적 가시성은 형상과 배경공간을 심연적 깊이로 무한히 확장시켜 경계를 소멸시킨다. <그림 2>도 어둠의 배경에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으로 감지되는 덩어리의 양감을 무한함으로 이끌고 구체적인 조형의 물리적 경계들을 분절시키고 잠재화 시키며 대상의 경계를 와해시킨다. 하지만 <그림 1>과는 다르게 모델의 후면 배경뿐만 아니라 전면까지 포함되고 관찰자의 공간까지 그 경계적 영역을 연장시켜 4차원적인 모호함을 조장하고 있다. 즉 공간의 규모를 인지할 수 있는 원근법적인 요소(공간 구조체의 선형적 요소)를 시차원적인 교란을 통해서 그 경계를 소멸시키고 현실과

<표 1> 돔의 2중표피 구조단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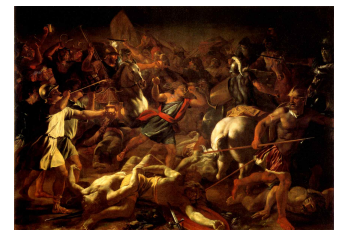
산 로렌조	산타 신도네	앵발리드	성 네포룩
			
			
하부 돔의 곡선조형구조가 상부에서 유입되는 빛으로 인해 과장된 대비와 조형적 무중력 상태를 연출	상, 하부 돔의 측면에서 유입되는 빛으로 깊이감이 강조되며, 원근감이 급격하게 과장됨	내외부 돔의 가시적 높이감의 차이와 2중구조의 이격과 빛의 유입으로 물리적 부피감이 교란됨	하부돔과 상부돔의 과도한 이격과 단순한 면처리로 인한 과장된 대비가 부유감을 높여줌

가상의 물리성을 무의화 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특성은 건축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표 1>을 보면 바로크 건축공간에서 표현되는 돔의 2중표피 기법은 본체와 돔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가운데 그 경계점을 디테일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상태로 연출하고 있다. 상부돔과 하부돔 사이를 조형적으로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빛을 유입시킴으로써 극적인 빛의 대비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착시효과는 돔이 무중력의 상태로 천상을 향해 부유하는 느낌을 심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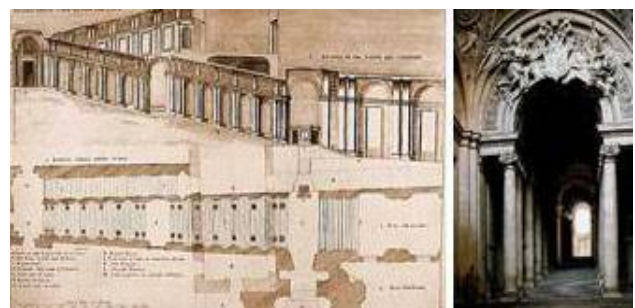
## 4.2. 중첩과 반복

바로크 공간과 화면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구성을 위한 구조형상들의 조합과 배치는 개체들 각각의 이격과 중첩, 반복으로서 이루어진다. 공간의 형성과정 자체가 구조를 둘러싸는 면들의 결합과 구성에 의하여 형상들의 배치와 원근법적 체계가 미술의 화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체와 개체들의 구성과 이격이 어떠한 체계로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모나드의 주름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형상과 공간을 탈경계적 개념으로 현상되도록 하는지에 대한 조형적 프로세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바로크 공간에서 나타나는 구조체와 형상들의 배치는 형태 앞에 또 형태, 겹쳐진 것 앞에 지속적으로 겹쳐지는 중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르네상스에서 보여지는 병렬적인 배치방법이 아닌 직렬적 배치를 통한 각각의 형태들이 온전하게 화면이나 공간에서 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개념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빌플린이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비교를 통해 밝힌 평면성과 깊이감의 차이에서도 언급되는바,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평면을 추구하는 가운데 화면을 하단의 액자선과 평행한 제반 층들 위에 재현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바로크에서는 전경과 후경의 관계를 강조



<그림 3> Battle of Gideon Against the Midianites, Nicolas Poussin, 1625



<그림 4> Scala Regia, Gian Lorenzo Bernini, 1598

하는 가운데 감상자로 하여금 깊숙이 들여다보게끔 요구함으로써 평면성을 약화시키고<sup>21)</sup> 형상의 경계들을 약화시킨다. 그에 의하면 건축에 있어서 고전성이 가지는 평면적인 층 구조가 바로크 건축에서는 애초에 평면성이 자제된 내진적 원근법으로<sup>22)</sup> 적용되었다.<sup>23)</sup> 르네상스식의 정면 응시를 위한 건축 형태의 규범이 여러 방향에서 건축의 형태를 조망하도록 하고, 건축의 내·외부가 명확한 경계를 갖지 않도록 하여 건축 외부에서의 조망 자체가 동시각적인 깊이감을 동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바로크 공간에서 나타나는 중첩에 의한 형상들의 직렬배치가 형상을 여러 방향에서 조망하도록 유도하고, 그로 인해 조형적 윤곽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조형원리는 형상의 경계를 와해시키고 특정 시각으로 고정되지 못하도록 하여 동시에 관찰자의 즉각적인 인지성을 유보시킨다. <그림 4>를 보면 계단을 따라 점점 올라 갈수록 중첩되는 기둥의 배열과 간격의 폭과 높이가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계단 밑에서 내부를 올려다보면 원근감이 왜곡되어 실제보다 더 멀리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미술에서 중첩된 개체들의 세부적인 표현의 정도가 <그림 3>와 같이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단순해지고 희미해지는 사례와 비슷한 개념이다.

### 4.3. 전체의 부분화 · 부분의 전체화

통일성은 부분이 독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각의 개별성이 통합되어 전체가 강조됨으로서 화면과 공간 속 주제들이 각각의 세밀함이나 특성은 간략화, 와해되면서 오히려 전체가 강하게 결속되는 방법이다. 즉 공간과 화면의 세부적 요소들의 개별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상대적 조화를 통한 원거리 감각의 시각적 통일감을 이끌어 내는 방법인데, 앞서 살펴본 모나드의 주름처럼 개별성들이 끊임없이 활성을 이루며 전체를 형성하는 원리이다. 이른바 형태요소 자체는 억제되는 상태에서 그것들의 관계가 작동하고 서로 관여되며 무한한 접힘을 지속하는 겹주름처럼 요소들은 각각의 단일성을 억제하고 전체의 유기체적 통일성을 이끌어 내며 전체의 양감을 고조시킨다. <그림 5>을 보더라도 화면 속 인물들 각각의 형태적 특



<그림 5> The Triumph of the Immaculate, Paolo de Matteis, 1710

21) 하인리히 뵐플린, 미술사의 기초개념, 박지형 역, 시공아트, 2004, p.113  
 22) 성당 건축의 성가대석과 제단처럼 바닥면이 점층적인 레벨차이를 보이며 원근감이 과장되는 것처럼, 입체적인 형식을 취하는 공간 구조 형식  
 23) 앞의 책, p.166

성과 개별성은 강한 원근법적인 생략과 각각의 개별성이 무시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색과 빛의 강렬한 주목성으로 인해 주제를 환상적이고도 강렬하게 그려낸다. 각각의 대상이 전체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관찰자가 주목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듦으로써 각각의 특성과 단일성의 윤곽을 지움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림 6>의 흉상 또한 표면이 거칠다 못하여, 투박한 망치로 거칠게 만든 것 같지만 거리를 두고 전체를 조망해 보면 마치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세밀함이 느껴진다. <그림 7>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St Peter's Cathedral) 성당도 건축적 요소들의 개별성이 각각의 전체 속에서 통일감을 이루어 전체성을 이끌어 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장을 둘러싸는 원주 회랑의 개별적인 형태가 이를 억누르는 전체적 통일감에 주목하도록 하여 하나의 전체로써 각각의 개별들이 인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윤곽은 명료한 양감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복수성을 통한 자족적 형상으로 비춰진다. 개체를 극복하는 전체적 시선을 통하여 시각각의 포커스를 근거리와 원거리로 구분시키고, 그중 하나에 집중해가며 나머지 하나를 화각에서 소외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6> Cardinal Scipione Borghese, Gian Lorenzo Bernini, 1632



<그림 7> St. Pietro, Donato Bramante, 1626

### 4.4. 순간과 연속

근대과학의 핵심 발명품 중 하나인 무한소 미분에서도 나타나는바, 운동을 통한 연속성 또는 연속적 운동은 바로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연속성은 일차적으로 르네상스와의 비교에서 분명하게 구분 되는바 물결치듯 구부러져있거나 중첩과 반복을 통한 형태와 공간구성은 그 자체로서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의지를 내포한다. 일련의 완성체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며 고전적 개념에서의 형태성. 즉 현재 상태에서 변모되지 않아야 하는 그 필연적 속성과는 구별되는 비구축적 의지를 내포한다. 의미의 여운을 남김으로써 미적인 묘현함을 대상 속에 포함시키는, 완성과 종결로써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적인 충동을 유발하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지속시키는 개념이다. 그래서 바로크 화



가들은 화면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 세계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연출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우연히 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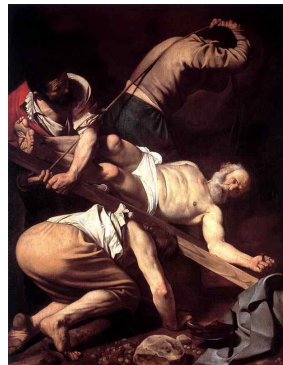
<그림 8>를 보면 화면의 인물들의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중력에 의한 존재의 무게가 인물들의 동작에 생생한 영향으로 전가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이는 화면의 존재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림 9>에서도 인물들의 표정과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마치 영화가 재생되고 있는 것 같은 연속적인 사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의 조각상의 움직임은 골리앗을 향해 던진 돌이 연속성의 착각을 통하여 관객으로 날아올 것처럼 동작이 완성되지 않고 순간적인 일시성을 자아낸다.

이처럼 바로크 조형에서 감지되는 순간의 연속성은 가시적 배경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이 취하는 현재적인 움직임과 연결된 시간성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다음 동작을 포함한 움직임의 항구적 잠재성이 현재적 완결성을 거부하고 고정된 프레임 밖으로 전가되어 나가려는 의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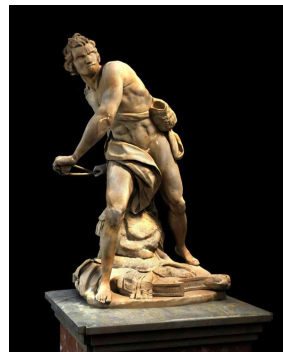
이 같은 특성은 건축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된다. 공간의 융합이나 서로간의 관입, 측방향을 확장하여 경계의 윤곽이 지워지고 점증되는 반복과 공간들 사이의 모순된 구조와 변형으로 감성이 즉각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는 모호함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동선으로서의 공간체계보다는 각 공간의 구성적 특징을 반영하는 운동감과 이로 인한 시각적인 체



<그림 8> Raising of the Cross, Peter Paul Rubens, 1610



<그림 9> The Crucifixion of St. Peter, Caravaggio, 1601



<그림 10> David, Gian Lorenzo Bernini, 1623

계로서 세부공간과 전체공간을 형성시키며 공간의 연속성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처럼 공간 안에서의 사건들도 의도적인 체계로 확장·전개된다. 합리적인 순환개념으로써의 운동성이 공간의 탈경계성에 작용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술에서와 같이 형태적 운동성이 시간적 연속성으로 대체되는 개념과는 다르다. 미술에서는 그 시간적 연속성이 선형적이라면 건축에서는 그것이 순환적 개념으로 표현된다.

## 5. 결론

바로크 미학에서 구현되는 존재의 가시적인 표현체계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철학적 세계관의 영향에 의한 르네상스 고전적 사유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존재론에 기반하고 있다. 즉 플라톤식의 조화체계에서 벗어나 라이프니츠의 생성철학에 그 바탕을 두고, 공간의 구조미학 자체가 전체의 형태본성을 강조하고 포괄적인 조형원리로 구축되는 데에 중요한 배경이 되어 주었다. 따라서 바로크는 전체 속에서 형태의 질서와 일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선형적이고 비물리적인 조형체계를 공간 구축의 원리로 이용하였으며, 르네상스의 자연적 질서체계를 기하학적으로 형태화한 조형원리와 매너리즘적 역동성을 결합시켜, 르네상스와 매너리즘이라는 두 힘으로부터 표출된 무한함과 과장됨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학적 개념들을 구축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바로크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구조체들의 탈 경계적 조형개념이 공간의 평면성을 극복하고 구조체와 형상의 지속적인 운동성을 이끌어 내는 궁극적인 원리로서 작용되었음을 상정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바로크 공간적 조형적 사유구조는 라이프니츠의 생성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접힘과 펼침의 상태를 포괄하는 수렴과 발산의 반복을 통하여 형상이 가진 최초의 의미를 와해시키고, 그 개념적인 탈규범과 변화로써 열린 구조와 재 규범에 도달한다. 즉 모나드의 접힘과 펼침의 연속적 과정에 의한 욕동의 충동과 불확정성을 존재 속에 잠재시켜 중심성을 해체, 탈영토화하여 전체를 부분화 하고 동시에 부분을 전체화하는 힘을 현상 속에 융기시킨다. 이원론이 아니라 본체와 현상에 대한 사유구조에 의한 접힘-[힘]-펼침의 연속성을 존재 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둘째, 모나드의 접힘과 펼침의 반복적 구조에 의한 존재의 힘은 순환적 의미로 수렴됨으로써 영토화 된 '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펼침의 개념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면 불확정적인 형상에 잠재되어 있던 사건과 행위의 변화를 불러오는 생성의 원리인 힘

이 ‘주름’과 같이 대립되면서 주체와 객체의 다양한 차이, 즉 응집과 새로운 의미의 형상화를 이루어낸다. 모나드의 ‘펼침’으로써 현현되는 이러한 생성적 차이 개념은 이질적이되 혼합 응집되어 일체화되는 모종의 상대적 혼성화가 되며, 이를 통해 이질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요소들이 대립적인 차이의 관계를 불러오고, 응집되고 일체화되면서 서로의 경계를 소멸시키며, 그 자리에 관찰자의 예정적 영감이 채워지는 하나의 완성태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셋째, 모나드의 사유 구조가 제시 하는 것처럼, 현상속에서의 유형성은 불확정적인 영역성과 시각적 규범 패턴을 무중력적인 상황으로 유기시키고 의미를 해체하는 것을 전제로 고정화·안착화 상태로 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상은 기본적으로 윤곽을 개략화 시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잠재화하는데, 주요한 특성은 앞서 고찰하였듯이 탈경계의 원리에 의한 심연적 깊이감, 중첩과 반복, 전체의 부분화·부분의 전체화, 순간과 연속의 특성으로 개괄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불확정적 탈경계의 구조에서 다양성을 실제화하고 지속적이고도 생성적인 조형성이 획득된다.

## 참고문헌

1.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사, 2001
2. 김영방, 바로크, 한길아트, 2011
3. 김용규 역, Charles Jencks, Late-Modern Architecture, 건우사, 1998
4. 윤재희, 건축의 공간과 형태, 세진사, 1995
5. 이정국 외 역, Christian Norberg-Schulz,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Spacetime, 2000
6.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거름, 2000
7. 이정우, 주름 갈래 울림, 출판사거름, 2001
8. 이찬웅 역, 질 들뢰즈,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문학과 지성사, 2004
9.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0
10. 김종욱,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형이상학의 문제, 서울대 박사논문, 1998
11. Bill Risebero, 서양건축이야기, 오덕성 역, 한길아트, 서울, 2000
12. Eugenio d'Ors, Le Baroque, Barcelona, Tecnoc. 1993
13. Gilles Deleuze, Plieugue, Barcelona, Paidos, 1989
14. Pierre Ducasse. les grandes philosophies, Paris PUF, 1967
15. Rolf Toman, Baroque, Konemann, 1998
16. 송주영, 바로크건축에 적용된 공간의 깊이감에 관한 연구,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9
17. 윤창의, 바로크 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연구, 서울대석론, 1982
18. 이찬웅, 들뢰즈의 생성의 존재론과 긍정의 윤리학, 서울대 석사논문, 2003
19. 한명식, 뉴욕5건축과 바로크건축에 나타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4호, 2005.4

[논문접수 : 2015. 08. 31]

[1차 심사 : 2015. 09. 23]

[2차 심사 : 2015. 10. 02]

[게재확정 : 2015. 10. 13]